

서호인의 '소설처럼'



아이들의 숲은 어디에 -손보미 장편소설 '사라진 아이들의 숲'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강화된 법안에 대한 극렬한 반대와 조롱이 난무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은 본래부터 의무였으나, 기존의 약속만으로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을 강화한 것이다. 어떤 어른들에게 학교 앞 짧은 거리를 30km로 달리는 게 인터넷에 굳이 댓글을 남겨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인 것이다. 또한 어떤 어른들은 강화된 법률도 줄어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보다, 만에 하나 자신이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불안에 더 주목하는 듯 보인다. 무엇이든 거기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이의 자리는 없다. 그들에게 아이는 귀찮고 번잡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혹은 언제든 어른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부주의한 존재거나.

손보미 장편소설 '사라진 숲의 아이들'에서 아이들

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은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세계와 태도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룬다. 소설의 주인공 채유형은 어릴 적 입양되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에게 온 우편물로부터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방화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게 한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은 그의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탐사 보도 피디인 채유형은 대중의 일회성 관심을 끌 만한 아이템을 찾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소년이 다른 정소년을 죽인 미성년자 살인사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또래를 잔인하게 죽였고, 사람들은 이 아이가 살인범이 된 현실을 다스린 자연스럽기 여긴다. 아이는 '그린' 부모와 '그린' 환경에서 자란 '그린' 아이로 치부된다. 그린 아이가 그저 그린 비행을 저지르고 어른이 되어서도 말바닥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다 그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의 '그린' 인생에서 범죄의 이유를 찾는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뜻이.

작가의 철저한 플롯 구성 아래 감춰져 있던 범인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면, 진짜로 그 애들을 사랑하면 돼. 그것뿐이야." '사라진 숲의 아이들'에서 숲은 살인의 씨앗이 자

란 장소지만 아이들이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또 다른 진경언 형사에 의해 숲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저 '말치 마 살인'으로 보였던 범행의 이유마저 설명되지만, '아이들'의 존재는 도리어 희미해지는 듯하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죽었다. 소설에서 이미 어른인 주인공부터 주인공의 혈육인 그 뒷세대까지 모두 각자의 숲을 떠돌던 아이였음을 소설은 넌지시 상기시킨다. 우리 모두 아이였기에, 소설 속 아이의 존재가 각자 서 있는 방식으로 도드라지지 않아야 되었던 게 아닐까. 아직 어른들이 되기 전인 모든 사람은 모두 숲처럼 실체를 다 알 수 없는 세계 앞에 선 보행자에 불과할 것이다. '사라진 숲의 아이들'은 아이들의 보행을 힘껏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설이다.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 아닌, 제대로 된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말하는 소설인 것이다.

'사라진 숲의 아이들'은 손보미 작가가 앞으로 선보일 '진 형사 시리즈'의 시작이 되는 작품이다. 앞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 무엇을 찾아나설 진경언 형사를 응원하며 이 소설을 읽는 것은 분명 무더운 여름을 즐겁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손보미 작가 특유의 긴장감과 인물의 심리를 파고드는 언술을 만끽하는 것도 소설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시인>

社說

'힘세진 경찰' 평가 시행 환영할 일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경찰에 대한 평가제를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권수사 범위가 축소된 대신 경찰에 수사 결정권이 부여돼 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이 맡는 수사가 급증하면서 장기사건도 늘었고 그만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경찰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힘이 세진 경찰을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 수시로 접촉하는 변호사들이 평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과 검사 평가가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도 경찰 평가제 도입의 배경이 됐다. 변호사회는 매년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천질 법관 및 검사와 하위 법관 및 검사를 각각 10명 안

팠으로 선정해 구체적 사례와 함께 공개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관·검사 평가가 효과를 거둔 만큼 경찰 평가제도 법관·검사 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과 방법 등 세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경찰평가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광주·전남에만 경찰관이 1만명에 달해 평가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지가 문제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찰평가 시작만 서울변호사회는 경찰 개개인을 대상으로 청렴성·인권의식·적법절차 준수·직무능력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광주변호사회의 경찰 평가제 도입은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지방에서는 처음이다. 힘 세진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발빠르게 도입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왕이면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꼼꼼히 살펴 시행하기 바란다.

의료칼럼

우리아이 근시진행, 멈출 수 없나요?



이태희 보라안과병원 원장

수를 갖게 되는데 오목렌즈로 초점을 보다 멀리 있는 망막에 맺히게 함으로써 시력을 교정할 수 있지만, 안경은 근시의 진행은 막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아이의 근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을까. 소아의 근시를 조기에 발견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현재 안과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드림렌즈와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이다.

드림렌즈는 잠자는 동안 착용해 시력을 교정하는 각막굴절교정술 렌즈로, 각각의 탄성이 좋은 소아의 근시 진행속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드림렌즈는 하드렌즈의 일종으로 잠을 잘 때 착용하면 렌즈가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 편평하게 해줌으로써 근시, 난시를 교정해주며 장기적으로 근시의 진행속도를 억제한다. 밤에만 착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되므로 생활에 불편함도 적다. 렌즈착용에 필요한 평균 수면시간은 7-8시간이며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없이 교정된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드림렌즈는 중등도 이하의 근시나 난시(약 근시-4.5D, 난시 -1.5D이하),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 성장기에 안경이 불편해 보이고 싶은 아이, 근시 진행속도가 부쩍 빨라지거나, 부모의 시력이 나빠서 근시의 유전적 성향이 있는 아이,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즐겨하는 아이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 드림렌즈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7-8세 정도

수를 갖게 되는데 오목렌즈로 초점을 보다 멀리 있는 망막에 맺히게 함으로써 시력을 교정할 수 있지만, 안경은 근시의 진행은 막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아이의 근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을까. 소아의 근시를 조기에 발견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현재 안과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드림렌즈와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이다.

드림렌즈는 잠자는 동안 착용해 시력을 교정하는 각막굴절교정술 렌즈로, 각각의 탄성이 좋은 소아의 근시 진행속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드림렌즈는 하드렌즈의 일종으로 잠을 잘 때 착용하면 렌즈가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 편평하게 해줌으로써 근시, 난시를 교정해주며 장기적으로 근시의 진행속도를 억제한다. 밤에만 착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되므로 생활에 불편함도 적다. 렌즈착용에 필요한 평균 수면시간은 7-8시간이며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없이 교정된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드림렌즈는 중등도 이하의 근시나 난시(약 근시-4.5D, 난시 -1.5D이하),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 성장기에 안경이 불편해 보이고 싶은 아이, 근시 진행속도가 부쩍 빨라지거나, 부모의 시력이 나빠서 근시의 유전적 성향이 있는 아이,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즐겨하는 아이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 드림렌즈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7-8세 정도

이머 소아 근시 진행을 약 43%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농도 아트로핀 약물치료는 주로 4-15세 소아 및 청소년에게 1일 1회 1방울씩 양안에 점안하는데, 이안약은 엄밀히 말해 근시치료제가 아닌 근시 진행억제제라 할 수 있다. 최소 2년이상 꾸준히 규칙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며, 약물에 의한 작열감이나 눈부심, 독서 시 불편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된 아트로핀 점안치료제는 0.125%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0.05%의 아트로핀이 근시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안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저농도 아트로핀 약물치료는 드림렌즈 착용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는 소아의 근시 진행을 약 50%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장기 어린이 근시 예방 및 건강관 눈 발달을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유지가 중요하다. 근거리에서 독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 휴식을 갖고, 하루 40분이상의 낮 시간동안 야외활동이 근시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아들은 자신의 근시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고 케어해주지 않으면 근시가 악화돼 일상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휴가철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 경각심 높여야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장성 상무대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도 지속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이동 등으로 15주만에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상향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3461명, 전남 5016명 등 847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됐다. 전남의 경우 지역별로 순천 934명, 여수 902명, 목포 738명, 광양 508명, 나주 305명, 해남 173명 등에서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장성은 관내 상무대에서 군 교육생 등 76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이같은 일일 확진자 수는 광주·전남의 평균 확진자 3000~4000명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인 코로나발생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다. 중앙방역대책 본부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이날 14만 9897명 늘어 누적 2069만42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재감염자 비율 역시 7월 2주 3.7%에 비해 7월3주 6.59%, 7월4주 5.43%로 높아졌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놀이시설, 대형 쇼핑몰이 인파로 들끓고 있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가철과 추석연휴로 이어지는 다음달까지는 코로나 폭풍이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개인 방역 등 경각심을 늦추선 안된다.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정부도 자율방역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길든, 짧은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날 때면 꼭 찾아보는 곳이 있다. 동네 책방이다. 특히 소도시에서 만나는 서점은 더 반갑다. 흥미로운 게, 서점 주위에는 아가자 기한 소품가게며 맛집도 한 두곳 있기 마련이어서 '소박한 여행일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동네책방'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사계절' 출판사의 강말실 대표가 펴낸 책이다. 전국의 23개 서점을 방문했던 그는 "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서점들이 눈에 밟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서점 주인들의 글을 받아 책으로 묶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가보고 싶었던 책방은 세평 남짓한 돌창고로 고쳐 문을 연 제주도 서점 '책은산물'이었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의 로망인 '서점지기'가 되어보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한 작은 서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나갈 우연히 발견한 곡성의 한 서점은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됐다. 곡성 도깨비마을에 자리잡은 '품안의 숲'(월·화·휴무)은 "이런 골짜기에 서점을 만들 생각을 한 사

람'이 저절로 궁급해질 정도로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책을 구입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를 받아두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곳이 강원도 어느 외진 산골마을인 듯한 착각이 든다. '품안의 숲'에서는 서점을 통해 빌려 '북스테이'도 할 수 있다.

순창에 작은 서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당연히 '읍내'에 있으려니 생각했다. 한데, '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서점은 동계면의 정말 작은 마을에 자리잡고 있었다. 서점 이름에 맞게 생태·환경·식물·농사 등에 집중한 큐레이션이 눈길을 끄는 곳이다.

광주에도 '책과 생활', '러브앤프리' 등 동네 책방이 10여곳에 이른다. 최근에는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작가와의 만남, 글쓰기, 책 만들어보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들이다.

세상은 넓고 동네서점은 많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작지만 멋진' 서점들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됐다. 곡성 도깨비마을에 자리잡은 '품안의 숲'(월·화·휴무)은 "이런 골짜기에 서점을 만들 생각을 한 사

동네 책방 여행

기고

작지만 소중한 절수노력, 가뭄극복의 시작



기남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수도지원센터장

최근 중부지방은 폭우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올해 남부지방은 강우량 부족으로 극심한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장마와 태풍에 기대했던 시원한 단비도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댐과 저수지에 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엘리뇨(바닷물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높은 상태 6개월 유지), 라니냐(해수 온도가 주변보다 낮은 것)와 지구온난화(지구 표면의 표면온도가 상승)로 인해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고온 현상과 가뭄 등 기상이변에 대해 피해가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사상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2019년 유엔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국가별로 비교·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53개 국가 중 129위로 이는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하며 주변국인 일본, 중국에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로 세

이와 더불어 물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물의 소중함을 알고 절수를 실천하는 작지만 소중한 '절수(節水)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절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평소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주방에서 설거지나 채소, 과일 등을 세척할 경우는 물을 받아서 세척하면 평소 사용량의 약 60% 정도의 물을 절감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구식 물탱크를 사용하면 30 l의 물이 소비되지만 대·소변용 물내리기를 구분하면 4.5 l의 물만 사용할 수 있다. 변기 수중에 절수기를 설치하거나 변기 안에 1.5 l 페트병을 넣어두면 약 20% 정도의 절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텀블러와 유리잔을 사용하면 0.5 l의 물로 충분히 양치질이 가능하며, 샤워기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보통 90 l의 물이 필요하지만 샤워 중 물을 잠그면 20 l의 물로 충분히 샤워할 수 있다. 빨래는 되도록 모아서 하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과 더불어 내가 물을 아껴 쓰면 이웃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절수를 생활화하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전남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은 정보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지역주민들과 각 기관의 노력이 하나가 된다면 최악의 가뭄사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절수 실천, 내일부터 시작하면 늦는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와 더불어 물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물의 소중함을 알고 절수를 실천하는 작지만 소중한 '절수(節水)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절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평소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주방에서 설거지나 채소, 과일 등을 세척할 경우는 물을 받아서 세척하면 평소 사용량의 약 60% 정도의 물을 절감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구식 물탱크를 사용하면 30 l의 물이 소비되지만 대·소변용 물내리기를 구분하면 4.5 l의 물만 사용할 수 있다. 변기 수중에 절수기를 설치하거나 변기 안에 1.5 l 페트병을 넣어두면 약 20% 정도의 절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텀블러와 유리잔을 사용하면 0.5 l의 물로 충분히 양치질이 가능하며, 샤워기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보통 90 l의 물이 필요하지만 샤워 중 물을 잠그면 20 l의 물로 충분히 샤워할 수 있다. 빨래는 되도록 모아서 하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과 더불어 내가 물을 아껴 쓰면 이웃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절수를 생활화하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전남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은 정보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지역주민들과 각 기관의 노력이 하나가 된다면 최악의 가뭄사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절수 실천, 내일부터 시작하면 늦는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실	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